김청연 기자

고전이면서 신간 같은 환경도서를 기다리며

겨울이 짧아진다. 1990년 이후 해마다 1~1.5도씩 기온이 올라간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봄이 빨리 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환경 생태계가 그만큼 심각하게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우리 출판계에서 깊이 있는 환경 관련 책이 이따금 나오는 것도 환경 생태계 문제와 무관치 않다. 생태계 문제가 거론될수록 관련 분야 책에 대한 시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말은 출판계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난다.

최근 생태계 문제를 논한 책 중 눈에 띄는 책은 수문출판사의《숲과 녹색문화》와 지성사에서 발간된《우포늪》이다. 숲과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걸고 산림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숲과 녹색문화》는 공해로 가득 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숲의 문화적 요소들을 점검한다. 특히, 재생지를 사용한 점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저자의 애정이 보인다.《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우포늪의 모습을 담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야생의 동식물들을 소개하고, 생태늪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도들은 녹색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간간이 나왔던 환경관련 책들처럼 환경문제를 걸고 넘어지기엔 미약한 점이 많다. 환경문제를 주논의로 끌어들이기보다는 화보 위주의 생태계 소개가 줄을 이었다는 사실이 그렇다. 단편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경관련 고전이 되기에는 깊이가 부족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침묵의 봄》이 이 분야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1962년에 발간된 이 책은 야생생물국에서 20년 간 일해온 레이첼 카슨이 4년을 투자해 완성했다. 책은 농약이 환경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 잔류 농약이 동물조직에 축적되고 연쇄작용으로 그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을 인류멸망과 관련해 제시했다. 지금은 너무도 일반화된 논리지만 '호숫가의 사초死草가 마르고, 새의 노래는 없어졌다' 는 문구를 단 그녀의 경고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주민, 학자 및 여론의 지지 속에 수많은 주의회가 유기염소계 농약 사용 규제를 결의했고, 1963년 대통령 과학고문위원회가 '농약에 관한 조사 보고서' 를 발표해 저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출판계에서 녹색문화 관련 도서는 끊이지 않고 발간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쏟아졌던 양에 비해 함량미달인 도서들이 많다. 문제제기는 되지만 대안 부재가 많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침묵의 봄》에 필적할 만한 환경관련서가 아직은 부족하다.

레이첼 카슨의 성과들을 본보기 삼는 작업이 시도되기를 기다린다. 단기적인 기획물로 반짝 시선을 끌기보다 오래 두고 볼 책을 만드는 것, 생태학 문제를 여론화할 만한 책을 만드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시도가 요구된다.

《침묵의 봄》은 고전이면서 신간이다. 늘 읽히기 때문이다. 우리 출판계에도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녹색바람이 이제는《침묵의 봄》같은 깊이 있는 책으로 발전할 때다.